

# 파니움 - 12번

다니엘서 11장 40절과 예언의 세 차례 봉인 해제

Jeff Pippenger

2025-09-12

다니엘서 11장 40절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구절은 1798년, 1989년, 그리고 2023년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린 것을 나타낸다. 그 책의 봉인이 세 차례 풀린 것은 "일곱 때"의 흠어짐이 마침에 이르렀음을 표한다. 1798년은 주전 723년에 앗수르가 북방 열 지파를 사로잡아 갔을 때 시작된 흠어짐의 2,520년이 마쳐진 때를 표시하였다. 1989년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공식적으로 제쳐 둔 1863년의 반역 이후 126년이 마쳐진 때를 표시하였다. 2023년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거리에 죽어 있던 3일 반이 마쳐진 때를 표시하였다. 2,520년(곧 126년과 3일 반—이 모두는 "일곱 때"의 상징들이다)이 마쳐질 때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다.

화이트 자매는 우리에게 1798년에 유예 기간의 종결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고 알려준다. 그녀가 이 사실을 기록할 때, 그녀는 평행한 역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또한 말세의 기별을 유예 기간의 종결과 관련된 사건들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밀러파의 역사에 관하여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자각하게 하고, 은혜 기간의 종결과 관련된 엄숙한 사건들을 준비하도록 분발시킬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 날들에 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설명하셨고, 천사들이 그분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게 하려고 함께 있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멍에로부터의 현세적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모든 소망을 걸었던 그분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신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쫓겨났고, 시련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채였다. 예수의 죽음은 마치 그분이 미리 경고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와 같이 예언들 속에서 미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 앞에 밝혀졌던 것만큼이나 우리 앞에도 분명히 열려 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와 관련된 사건들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의 사역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무수한 사람들은 마치 그것들이 결코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중요한 진리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탄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들 모든 감화를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으며, 환난의 때가 오면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대쟁투, 595.

밀러파의 기별은 1798년에 봉인이 풀렸고, "은혜의 시간의 종료와 관련된 사건들"을 제시했다.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제자들의 역사를 적용하여 "은혜의 시간의 종료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못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1798년, 1989년, 2023년에 봉인이 풀린 기별들은

"은혜의 시간의 종료와 관련된 사건들"을 식별했다.

40절은 다니엘서가 세 번 봉인이 풀리는 때를 나타내는 역사적 선을 가리킨다. 1798년에 7~9장을 가리키는 올라이 강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의 봉인이 풀렸다. 1989년에 10~12장을 가리키는 히데겔 강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의 봉인이 풀렸다. 2023년에는 다니엘서 11장 40절의 감추어진 역사의 봉인이 풀렸다.

40절의 역사는 1798년부터 41절의 일요일법령까지를 나타내며, 곧 미국의 역사인데, 그 미국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자, 요한계시록 16장의 거짓 선지자이며,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다. 다니엘 11장 40절에 표상된 동일한 역사는 요한계시록의 한 절에서도 표상되어 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더라. 그에게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고 용과 같이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

이 절은, 40절과 마찬가지로,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으로 시작해 국가가 용처럼 말할 때의 일요일 법령으로 끝나는 역사, 곧 교황 로마가 왕좌에서 끌어내려질 때 시작해 교황 로마가 왕좌로 복귀할 때 끝나는 역사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다니엘서 11장 40절이 모두 나타내는 역사는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이 제거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제거되는 것으로 끝난다.

성경 예언의 첫째 왕국으로서 바벨론이 성경 예언의 둘째 왕국에 이르기까지 통치한 '칠십' 년은 1798년부터 일요일법에 이르는 40절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날에 두로가 한 왕의 연수대로 칠십 년 동안 잊혀지리라. 칠십 년이 끝나면 두로가 음녀같이 노래하리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라, 잊혀진 음녀여. 고운 가락을 타며 많은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게 하라. 칠십 년이 지난 뒤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가 다시 자기의 샅을 좇아 온 땅 위의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 음행하리라. 이사야 23:15-17.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이사야 2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두로의 창녀가 잊혀지는 때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사야 23장은 그 기간을 '칠십 년'이요 '한 왕의 날들'이라고 표현한다.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성경 예언의 첫째 왕국이 통치했으며, 이는 어린양으로 시작하였으나 결국 용처럼 말하게 되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을 예표한다. 느부갓네살은 어린양의 추종자를, 벨사살은 용의 추종자를 대표한다.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역사이기도 하며, 밀러주의자들의 개혁으로 시작하여 14만 4천의 개혁으로 끝난다. 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때에 관한 기별이다. 밀러주의자들은 심판의 개시와 관련된 사건들을 선포했고, 14만 4천은 은혜 시기의 마감과 관련된 사건들을 선포한다.

은혜의 기간의 종결과 관련된 사건들은 예언의 내적·외적 맥락에서 묘사되어 있으며, 그 사건들은 주로 다니엘 11장 40절이 나타내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40절의 사건들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최종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사건들은 40절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때 온 세상이

직면하게 될 위기는 미국에서 막 끝났다. 그 사건들은 미국에 대한 심판과, 교회가 기치로 높이 들려지기에 앞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케 되는 일을 나타낸다.

은혜 기간의 종료와 연관된 내적 사건들은 그분의 마지막 때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을 완성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낸다. 외적 사건들은 교황권에 권세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을 드러낸다.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미국의 모든 역사와 라오디게아의 모든 역사는 40절이 대표하는 역사 동안에 전개된다.

40절에 내재한 내적 노선과 외적 노선은 땅의 짐승의 두 뿔로 표현된다. 공화주의의 뿔은 외적 노선이고, 개신교의 뿔은 내적 노선이다. 두 노선 모두 여섯째 왕국의 역사 속에 존재하며, 여섯째 왕국의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개신교의 뿔과 공화주의의 뿔 모두에게 임한다. 유예 기간의 종료와 관련된 사건들을 규명하는 메시지는, 미국이 그 유예 기간의 잔을 채워 갈 때 그 위에 임하는 사건들을 규명하는 메시지이다. 유예 기간의 종료와 관련된 사건들을 규명하는 메시지는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그 유예 기간의 잔을 채워 갈 때 그 위에 임하는 사건들을 규명하는 메시지가이기도 하다.

40절의 역사 안에는 다니엘서의 봉함이 풀리는 때가 세 번 있으며, 그 세 차례 각각은 은혜의 때가 끝남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여주는 내부 라인과 외부 라인을 형성한다. 이 세 이정표 각각에는 그에 앞서 일곱 때의 흠여짐이 있다. 그러므로 40절은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역사를 대표하며, 그 역사 속의 예언적 이정표들은 “은혜의 때가 끝남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40절의 역사 안에서 내부 라인은 처음에는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의 전환을, 끝에서는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그 시작은 열 처녀의 비유로 예시된 개혁 운동을 대표했으며, 그 비유는 또한 마지막의 개혁 운동을 예표했고, 그 마지막의 개혁 운동은 그 비유를 글자 그대로 성취하였다.

필라델피아 밀러파 운동은 1798년에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가 성취됨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1844년 10월 22일에 ‘일곱 때’의 또 다른 성취가 있었다. 적어도 1856년까지 제임스 화이트와 화이트 자매는 그 운동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해에, 끝내 완간되지 못한 교회의 공식 간행물에서 ‘일곱 때’에 관한 새로운 빛이 제시되었다. ‘일곱 때’는 1798년에 성취되었고, 그 후 윌리엄 밀러는 화이트 자매가 ‘진리의 사슬의 시작’이라고 부른 것을 발견했는데, 그 ‘진리의 사슬의 시작’은 ‘일곱 때’였다. 1798년은 ‘일곱 때’의 성취였고, 그 후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리면서 밀러는 ‘일곱 때’에 관한 기초적 발견을 하게 된다. 그 뒤 1844년 10월 22일은 ‘일곱 때’의 또 다른 성취를 표시하며, 이는 이어 같은 해에 ‘일곱 때’에 관한 새로운 빛이 미완으로 남겨지는 가운데, 운동이 필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1863년에, 1856년까지는 필라델피아 밀러파 운동이었다가 그때 밀러파 라오디게아 운동으로 전환했던 그 운동이, 주로 남북전쟁과 교회의 청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과 압력 아래, 법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되었다. 그 운동은 1863년에 교회가 되면서 끝났다. 그 7년 전인 1856년에 라오디게아는 윌리엄 밀러의 최초의 예언적 발견이었던 바로 그 주제에 관한 새로운 빛의 메시지를 제쳐두었다.

밀러주의 운동과 ‘진리의 사슬의 시작’이라 불리는 빛, 곧 ‘일곱 때’의 빛은 라오디게아 운동의 지도부에게 열렸으나, 그들은 점차 ‘일곱 때’를 지키려는 열망을 제쳐 두었고,

1863년 일곱 해('일곱 때')의 끝에 이르러 '일곱 때'에 대한 아무 언급도 없이 새로운 도표와 예언적 메시지가 나왔다.

1863년에 이사야의 65년 예언은 시작과 같은 모습으로, 곧 남과 북 사이의 내전으로 결론을 맺었다. 1863년의 노예제 문제는 "일곱 때"의 성취로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두 포로로 끌려간 사건으로 예표되었고, 이스라엘이 끌려가 겪은 노예 상태는 끝에 나타날 노예제 문제를 적절히 나타냈다. 1863년은 이사야의 65년 예언에 기초한 예언적 구조의 끝을 나타낸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일이 서지 못하며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임이라. 육십오 년 내에 에브라임이 부서져 더 이상 백성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리라.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7-9.

올바르게 이해하면, 기원전 742년에 시작된 이 예언은 65년의 기간 안에 세 개의 이정표를 지목한다. 그 이정표들 중 두 개는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2,520년간의 포로와 노예 생활의 시작점을 가리킨다. 기원전 742년에 북왕국과 남왕국은 내전에 휘말려 있었고, 북쪽의 열 지파는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시리아와 동맹을 맺었다. 19년 뒤인 기원전 723년에 북쪽의 열 지파는 아시리아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다. 그로부터 46년 뒤인 기원전 677년에 아시리아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기원전 723년에서 2,520년을 더하면 1798년, 곧 끝의 때이자 40절의 시작에 도달한다. 그로부터 46년 뒤, 기원전 677년에 시작된 남왕국을 향한 "일곱 때"는 1844년에 끝났다. 그로부터 19년 뒤인 1863년에 기원전 742년의 예언적 특성이 글자 그대로 재현된다. 기원전 742년과 1863년에는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기원전 742년에 악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전한 예언은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가 곧 노예가 될 것에 관한 것이었고, 1863년 남북전쟁의 한복판에서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하여 노예제 종식의 과정을 시작했다. 기원전 742년에 악한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그 경고는 문자적 영화로운 땅에서 주어졌으며, 이는 영적 영화로운 땅에서 링컨이 전한 메시지를 예표한다.

1856년에 하이람 에드슨의 '일곱 때'에 대한 메시지들이 발표된 지 7년 뒤, 재림주의 진영은 1863년 도표를 제작했는데, 그 도표는 '일곱 때'에 대한 밀러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삭제함으로써, 우리가 밀러주의자들의 메시지를 반복해야 하며 또한 그 메시지가 공격받을 때 이를 변호해야 한다고 엘렌 화잇이 가르치는 무수한 대목들을 의문시하게 만들었다. 같은 해에 그들은 법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되었다. 1863년과 그 예언적 함의에 대해 더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지적하는 것은 1863년의 반역을 지목하는 내부적·외부적 여러 증거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남부 주들과 관련된 외부의 반역이든, 첫 번째 기초 진리를 거부한 내부의 반역이든 말이다. 1863년은 '유예 기간의 종결과 관련된 사건들'을 구성하는 이정표를 이루는, 40절의 역사 속 사건들 가운데 하나다.

1863년은 고대 문자적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40년의 시작과 일치한다. 그 40년의 끝에 여호수아는 고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그들은 여리고를 함락시켰으며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1863년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지도부가 여리고를 재건했다. 1863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시작과 끝으로 나타난다. 1863은 40절의 역사에서 외적 라인과 내적 라인의 역사를 서로 결합하는 예언적 이정표이다. 일곱째 교회, 곧 "라오디게아"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심판받는 교회"가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대표되는 시기로 들어간다. 같은 시점에, 첫 공화당 대통령이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위기의 시기에 계엄령을 시행할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들을 예표하는데, 그것은 영감이 "국가적 파멸"이라 부르는 것으로 이어진다.

시작의 이정표들 속에 끝의 이정표들이 표상되어 있으며, 심판의 마침과 관련된 사건들은 심판의 개시와 관련된 사건들 속에 예표되었다. 사십 년의 시작에 가데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별을 거절한 반역은 사십 년의 끝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반석을 친 반역을 예표했다. 1863년은 라오디게아가 주의 입에서 토하여 버려짐을 당하고, 에스겔 8장에서 예루살렘의 스물다섯 명의 장로가 해에게 절하며, '우리가 여호와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신뢰하는 자들 위에 실로가 반복되는 그 주일법을 지목한다.

다음 기사에서 파니움에 대한 이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